국제금융시장 9월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김 혜 진 (ghjkim@kdb.co.kr)
정 대 형 (wellbaby@kdb.co.kr)

◆ **(환율)** 5월 이후 약세를 지속하였던 달러화의 강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위안화 강세,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강세 시현

◆ **(금리, 주가)** 미 국채 장기금리는 전월대비 변동성 감소를 보인 반면, 선진국 증시는 각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독립적인 시세변동 시현

□ (환율) 달러화 가치는 미국 주가 하락,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, 원/달러 환율은 위안화 강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약 1,170원으로 하락

○ 달러 인덱스*는 중순 이후 미국 기술주 가격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, 유로화 약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상승

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
-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공식화의 영향이 약화된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
- 5월 이후 경제회복기금 합의 등으로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는 코로나19 재확산, 재봉쇄에 따른 경기회복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

○ 엔화는 스가 신임 총리 취임으로 아베노믹스(엔화 약세)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

○ 유로화는 유럽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, 유로화 강세에 대한 ECB 관계자의 발언 등으로 약세 전환

- 10일 라가르드 ECB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은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, 환율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

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8월말	'20.9월말	전월대비
달러 인덱스	96.140	96.479	92.170	93.849	+1.82%
엔/달러	109.61	108.66	105.91	105.45	△0.43%
달러/유로	1.1456	1.1219	1.1936	1.1720	△1.81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○ 원/달러 환율은 위안화 강세 동조, 수출 개선,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1,158원까지 하락 후 반등하여 1,170원선 부근에서 등락

- 위안화 강세의 주요 동인은 ①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국 경제, ② WGBI* 편입 이슈 등

* 세계국채지수(World Government Bond Index)란 미국, 영국, 일본, 프랑스 등 20개국 이상의 선진국 국채가 편입된 글로벌 채권지수로 런던증권거래소의 지수 관련 자회사 FTSE 러셀이 관리

· 8월 중국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지표가 호조를 보였으며, 24일 중국 국채의 WGBI 편입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전망

- 9월 수출이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9일 발행된 외평채 발행금리(달러화 1.198%, 유로화 △0.059%)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개선

원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8월말	'20.9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	1,115.7	1,156.4	1,187.8	1,169.5	△1.54%
원/엔	1,017.9	1,064.2	1,121.1	1,108.5	△1.12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월 초순 급락과 급등을 보인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중순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세

○ 미국 나스닥 기술주 가격 폭락(3~4일)에 따른 주식시장 이탈 자금의 국채시장 유입으로 국채 금리가 급락했다가 5일 미국 8월 고용지표 발표(실업률 급락)에 급반등

- 9월 FOMC(15~16일)의 '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방침이 당분간 통화정책의 현저한 기조변화는 없을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장기금리의 변동성 감소*

* 8월 변동폭 24.53bp (0.5069~0.7522) > 9월 변동폭 8.33bp (0.6347~0.7180)

- 월 후반 소폭 등락은 유럽 등 코로나19 재확산 동향, 미국 추가 재정부양책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

□ (주가) 선진국 증시는 전세계적인 동조성 없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독립적인 행보

○ 미국 증시는 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전월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한 반면, 유럽 증시는 월 중반에 급락하였고 일본 증시는 월중 급등락 반복

- 월 중순 미국은 정보기술주 매도(하락), 유럽은 M&A 가속화(상승), 월 하순 미국은 양호한 주택시장지표(상승), 유럽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(하락) 등 엇갈린 시세 시현

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

		'18년말	'19년말	'20.8월말	'20.9월말	전월대비
금리 (%)	미국채 10y	2.6842	1.9175	0.7048	0.6840	△2.08bp
	독일채 10y	0.2420	-0.1850	-0.3970	-0.5220	△12.50bp
	일본채 10y	0.0030	-0.0110	0.0510	0.0160	△3.50bp
주가 (pt)	다우존스	23,327.46	28,538.44	28,430.05	27,781.70	△2.28%
	유로 Stoxx 50	3,001.42	3,745.15	3,272.51	3,193.61	△2.41%
	Nikkei	20,014.77	23,656.62	23,139.76	23,185.12	+0.20%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시장 10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김 혜 진 (ghjkim@kdb.co.kr)
정 대 형 (wellbaby@kdb.co.kr)

◆ **(환율)**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달러화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, 원/달러 환율은 전월의 하락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
◆ **(금리, 주가)** 주요국의 추가적인 재정정책 실시 관련 소식이 시세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, 단기 뉴스에 따라 시세 등락이 반복되는 혼조세 전망

□ (환율) 달러화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며, 원/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 것으로 판단

○ 달러화 : 변동성 장세

- 달러화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, 추가 경기부양책 이슈 등으로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
  · 미 대선 1차 TV 토론 및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지지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,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실패 시 결과 불복 가능성을 시사

* 트럼프 대통령은 9.23일 우편투표 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연방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

○ 엔화 : 보합세

- 스가 총리의 아베노믹스 계승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의 제한적인 통화정책 여력,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
○ 유로화 : 약세 압력 우세

-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, 재봉쇄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, ECB 관계자의 유로화 강세에 대한 구두 개입 영향 지속 등으로 약세 압력이 우세할 전망
  · 프랑스, 스페인 등에서 봉쇄조치가 재차 시행되었으며, 9월 유로존 서비스업 PMI는 기준선(50)을 하회하는 47.6을 기록
  · 또한, 유로화에 대한 투기적 순포지션*은 8월 하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

* CFTC(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)가 매주 발표하는 "비상업적(non-commercial, 투기적)" 거래자들의 순포지션 내역에 따르면 유로화에 대한 비상업적 순포지션은 8.25일 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

○ **원/달러 환율 :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**

- 9월 원/달러 환율 하락의 주요인이었던 위안화 강세가 10월에도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
  · 중국 국채의 WGBI 편입은 '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강세 요인이나, 단기적인 추가 강세 압력은 제한적일 것
  · 또한,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음
- 대내적으로는, 9월의 수출 개선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어 지켜볼 필요
  · 추석 연휴로 인한 10월 조업일수 감소,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 등 수출 회복에 비우호적 여건 예상

미국 대통령 후보 지지율 추이

자료 : Bloomberg

유로화에 대한 투기적 거래자의 순포지션

자료 : Bloomberg

□ **(금리, 주가) 미국과 유럽 등의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소식이 시세변동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**

○ **금리 : 9월에 줄어든 변동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 존재**

- 연준의 적극적인 추가 개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부양책 실시 전망에 따라 전월보다 큰 변동폭 시현 가능

○ **주가 : 9월 조정 후 박스권 혼조세 전망**

- 미국, 유럽의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, 미 대선의 불확실성,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, 3분기 기업실적 예상치 발표 등 단기 뉴스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

(담당자 : 환율 - 김혜진, 금리·주가 - 정대형)